

제27호 (주)휴비스 수원공장 경영지원팀 안전환경part 김진호 과장



노력하는 자세로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터

봄을 제일 먼저 부르는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봄효의 고장 경기도 수원에 흐드러진 벚꽃길을 따라, 향긋한 벚꽃 내음을 따라 안전은 만점이 없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는 사나이가 있다기에 그를 만나러 수원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김진호 과장은 1979년 1월 SK 케미칼(주)수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회사가 분리되면서 폴리에스터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주)휴비스 수원공장으로 소속을 옮기고, 현재 양사 모두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안전은 만점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마인드 가져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만점이라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김진호 과장은 만점이 될 수는 없지만 최고점을 달성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한다.

사람과 기계, 그리고 이 두가지를 연계시켜주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근로자에게 아무리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하거나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김진호 과장의 생각이다. 안전관리자나 감독자는 보조하고 도와주는 도우미일 뿐이지 안전의 주체는 바로 근로자 자신이라는 것이다.

직장내 안전을 위해 「자율안전」을 1순위로 꼽는 김진호 과장은 안전당직점검제나 소방설비실명제, 위험작업 및 화기작업의 사전허가제도,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직장내 자율안전정착을 촉진시킨다. 이 모든 활동은 안전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기회를 높이고 체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도 배가시킨다.

근처 광교산을 즐겨찾고 주 1-2회 10km 이상을 달린다는 김진호 과장은 요즘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쓴다. 본인의 건강을 통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직장에서의 안전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라.

김진호 과장을 만날 때 보았던 활짝핀 벚꽃처럼 그의 노력과 사랑으로 (주)휴비스 수원공장에 안전꽃이 만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 기자〉